2025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저

- 2024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시 해석력 높이기를 통해 시 해석법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표지 안쪽

2025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저

- 2024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시 해석력 높이기를 통해 시 해석법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구원 수능국어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서편〉 〈언어편〉 〈화법과 작문편〉 집필 (구원 수능국어 간행)

구원 수능국어 못 본 시 해석법 (구원 수능국어 간행)

수능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 현대시/고전시가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25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일곱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실전모의고사 등의 일곱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대시 고전시가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시 해석력 높이기를 통해 시 해석법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난해한 시를 보다 쉽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 례

제1부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2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유형문제

1. 반어, 역설·모순 형용,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24
유형문제1-1 길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4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2 꽃을 위한 서시 / 폭포 5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3 승무 / 국화 옆에서 5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4 어부가 6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5 우부가 6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6 사리화 /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 냇가의 해오랍아 6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1-7 못 잊어 / 오늘도 고향은 / 농무 / 딕들에 동난지이 / 눈 / 벽모의 묘 70
시 해석력 높이기

2. 상징 77
유형문제2-1 아버지의 마음 / 가정(家庭) 9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2-2 까치밥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95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2-3 누룩 / 연탄 한 장 9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2-4 규원가(閨怨歌) 10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2-5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처용가 107
시 해석력 높이기•123
유형문제2-6 찬기파랑가 / 목마와 숙녀 / 간 110
시 해석력 높이기

3. 심상 114
유형문제3-1 길 /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12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3-2 강(江) 2 / 벼 12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3-3 만가(輓歌) -애(哀)소리 12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3-4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곡자(哭子) 13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3-5 십자가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전원(田園)에 남은 흥(興)을 136
시 해석력 높이기

차 례

4. 시어의 의미 · 기능과 생략된 시구 ····· 140

유형문제4-1 참깨를 털면서 / 도다리를 먹으며 16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4-2 목숨 / 나비의 여행 -아기의 방(房) 5 17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4-3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17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4-4 야청도의성(夜聽搗衣聲) / 연행가(燕行歌) 18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4-5 깃발 / 종소리 / 면앙정가 185
시 해석력 높이기

5. 운율 ····· 188

유형문제5-1 타는 목마름으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19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5-2 청산도 / 꽃덤불 19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5-3 농가월령가 20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5-4 보리타작 / 모내기노래 205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5-5 모란이 피기까지는 / 왕십리 / 남으로 창을 내겠소 / 청산별곡 208
시 해석력 높이기

6. 형상화 ····· 212

유형문제6-1 맹인 가수 부부 / 사평역에서 21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6-2 떠나가는 배 / 봉황수 22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6-3 용부가 226
유형문제6-4 안민가(安民歌) / 굼벙이 매암이 되어 23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6-5 바다와 나비 / 나비와 광장 / 등고(登高) 233
시 해석력 높이기

7.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 의도 ····· 237

유형문제7-1 나의 가난은 / 설날 아침에 27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7-2 눈물 / 은수저 27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7-3 누항사 28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7-4 유산가 282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7-5 찬기파랑가 / 사모곡 289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7-6 사슴 / 오랑캐꽃 / 또 다른 고향 / 사령(死靈) 293
시 해석력 높이기

차 례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 298
유형문제8-1 개봉동과 장미 / 그 여름의 끝 326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8-2 타는 목마름으로 / 껍데기는 가라 33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8-3 봉선화가 334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8-4 정과정(鄭瓜亭) / 개야미 불개야미 338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8-5 광야 / 울릉도 / 성북동 비둘기 / 하우요(夏雨謠) 342
시 해석력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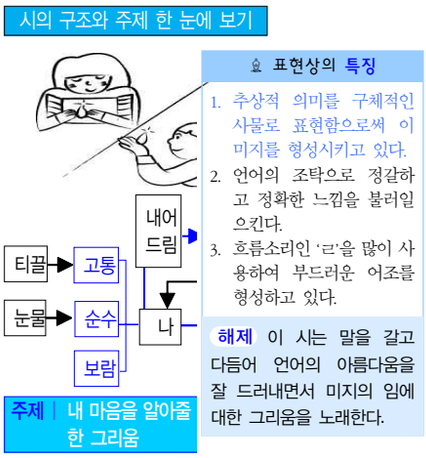
9. 표현상의 특징 ····· 344
유형문제9-1 휴전선(休戰線)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386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9-2 눈 / 가을의 기도 390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9-3 속미인곡 393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9-4 창 내고쟈 / 어이 못 오던가 / 나모도 바히돌도 397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9-5 혼몽 / 산촌에 밤이 드니 401
시 해석력 높이기
유형문제9-6 나의 침실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404
시 해석력 높이기

제5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 410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쑤우우우우우욱 올라갑니다.

가. 모든 시의 해설



1.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시의 구조와 주제를 그림과 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표현상의 특징

각 시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수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 밝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시 해석력 높이기

시구 자체를 이용하여 내재적으로 시를 풀이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제1부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 최근 연도의 수능 문제를 싣고 해설하였으며 그 유형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꼭 해설까지 잘 읽어 봅시다.

다.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유형문제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기출 수능 문항에서 역추론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 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2 운 율 [유형문제]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라. 제3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제를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여 원리를 외우지 않아도 구원 수능국어 원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록 작품명

가나다순

현대시

ㄱ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정, 박목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별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간, 윤동주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강 2, 박두진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거산호 2, 김관식
고고, 김종길
고사, 조지훈
고풍, 신석초
고향 앞에서, 오장환
광야, 이육사
교목, 이육사
구두 한 켤레의 시, 곽재구
구두, 송찬호
구름의 파수병, 김수영
구성동, 정지용
국화 옆에서, 서정주
귀뚜라미, 이원섭
귀촉도, 서정주
그 나무, 김명인
그리움, 이용악
그 여름의 끝, 이성복
그의 반, 정지용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사람, 신동엽
길, 김기림
길, 김소월
깃발, 유치환
까치밥, 이성부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꽃, 이육사
꽃덤불, 신석정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ㄴ

나그네, 박목월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뭇잎 하나, 김광규
나비와 광장, 김규동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 5, 정한모
나의 가난은, 천상병
나의 침실로, 이상화
낙화, 이영도
낙화, 이형기
낡은 집, 이용악
낡은 집, 최두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농가, 위백규
농무, 신경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누룩, 이성부
눈, 김수영
눈물, 김현승
님의 침묵, 한용운

ㄷ

당신의 무덤가에, 도종환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들길에 서서, 신석정
떠나가는 배, 박용철
또 다른 고향, 윤동주

ㅁ

마음의 고향 2– 그 언덕,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시영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촌, 오장환
목계 장터, 신경림
목련이 봄비에게, 장성수
목마와 숙녀, 박인환
목숨, 신동집
문, 김종길
못 잊어, 김소월

ㅂ

바다와 나비, 김기림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위, 유치환
벼, 이성부
벽공, 이희승
벽모의 묘, 황석우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봄은, 신동엽
봉황수, 조지훈
불국사, 박목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뻔디기, 서정주

ㅅ

사랑, 김수영
사령, 김수영
사슴, 노천명
사평 역에서, 곽재구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산, 김광섭
산 · 9, 김광림
산도화 I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살구꽃, 김억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새, 김기택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서시, 윤동주
석문, 조지훈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설날 아침에, 김종길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에꽃, 최두석
성탄제, 김종길
승무, 조지훈
시다의 꿈, 박노해
십자가, 윤동주

ㅇ

아니오, 신동엽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엄마 걱정, 기형도
여승, 백석
연시, 박용래
연탄 한 장, 안도현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오랑캐꽃, 이용악
오렌지, 신동집
오월, 김영랑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와사등, 김광균

수록 작품명

가나다순

왕십리, 김소월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서정주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울릉도, 유치환
유리창1, 정지용
윤사월, 박목월
은수저, 김광균
음지의 꽃, 나희덕
이별가, 박목월
인동차, 정지용

ㅈ

자수, 허영자
자야곡, 이육사
자화상, 윤동주
절정, 이육사
정념의 기, 김남조
조국, 정완영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조찬, 정지용
종달새, 박남수
종소리, 박남수
즐거운 편지, 황동규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진달래꽃, 김소월

ㅊ

찬송, 한용운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채전, 유치환
청노루, 박목월
청산도, 박두진
초가, 이육사
추억에서, 박재삼
춘향 유문— 춘향의 말3, 서정주
출세기, 유치환

ㅌ~ㅍ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탄궁가, 정훈
통박, 박노해
파초우, 조지훈
폭포, 김수영
폭포, 이형기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ㅎ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향수, 정지용
황혼, 이육사
휴전선, 박봉우

A~Z

The Last Train, 오장환

고전 시가

ㄱ~ㅎ

가시리, 작가 미상
강설, 유종원
강촌, 두보
강호사시가, 맹사성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가 미상
개야미 불개야미, 작가 미상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고산구곡가, 이이
곡자, 허난설헌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처
관동별곡, 정철
구룸이 무심탄 말이, 이존오
굼벙이 매암이 되어, 작가 미상
규원가, 허난설헌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작가 미상
냇가의 해오랍아, 신흠
농가월령가, 정학유
누항사, 박인로
닉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가 미상
도산십이곡, 이황
독자왕유희유오영, 권섭
등고, 두보
만가 -애소리, 작가 미상
만분가, 조위
면앙정가, 송순
모내기노래, 작가 미상
모죽지랑가, 득오
보리타작, 정약용
봉선화가, 작가 미상
북찬가, 이광명
북창이 맑다커늘, 임제
비가, 이정환
사리화, 이제현
사모곡, 작가 미상
사미인곡, 정철
산촌에 밤이 드니, 천금
상사곡, 박인로
상춘곡, 정극인
성산별곡, 정철
속미인곡, 정철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안민가, 충담사
야청도의성, 양태사
어부가, 이현보
어와 동량재(棟梁材)ᄅᆞᆯ, 정철
어이 못 오던가, 작가 미상
연행가, 홍순학
옛날 석가모니불이, 일연
용부가, 작가 미상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우부가, 작가 미상
월선헌십육영가, 신계영
유산가, 작가 미상
율리유곡, 김광욱
이런들 엇더ᄒᆞ며, 이방원
일동장유가, 김인겸
전원에 남은 흥을, 김천택
정과정, 정서
제망매가, 월명사
지수정가, 김득연
찬기파랑가, 충담사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작가 미상
창 밧긔 워석버석, 신흠
처용가, 처용
천만리 머나먼 길히, 왕방연
청산별곡, 작가 미상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춘면곡, 작자 미상
하우요, 윤선도
한거십팔곡, 권호문
한숨아 세한숨아, 작가 미상
혼몽, 이옥봉
화암구곡, 유박
흥망이 유수ᄒᆞ니, 원천석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2024 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현대시 · 고전 시가 해석법

1.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주관적인 글이므로 서정적 자아가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왜 그렇듯이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 지엽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심 제재에 대하여 '어떠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다'라고 말하는가를 파악해 본다.
4.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본다.
5. 표현상의 특징(운율, 표현 기법, 어조, 화자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가 알아본다.
6. 시의 구조(선경후정, 수미상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기승전결, 기서결, 연상적 구성, 열거식, 인과적 구성 등)가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7. 사용된 시어의 특징과 관습적·원형적 상징 의미를 알아본 후 이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알맞은가 생각해 본다.

Œ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현대시·고전시가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작품명과 작가

㉮문, 김종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고요하고 편안하게 보낸 천년

↓

연년이 쇠락해지는 단청과 두리기둥

↓

세월의 흐름과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

↓

세월의 흐름과 자연물의 소멸과 생성

↓

암흑을 걷어낸 새벽에 기쁨을 알리며 열리는 문

↓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

주제 | 암울한 시대를 벗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감격

표현상의 특징

1. 중심 대상을 의인화시켜 감정을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문을 소재로 하여 정밀한 천년 세월의 흐름에 이어진 암흑기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면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작품명과 작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내적 요인들
↓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외적 요인들
↓
가지에게 담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주제 |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내외적 요인들과 가지에게 담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표현상의 특징

1.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2. 중심 제재를 의인화하여 그 행위의 인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의 행위를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외적 조력자, 심지어 극복 대상마저도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행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

수필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잊음을 논함, 유한준

주제 : 잊어야 할 것들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함

해제 : 이 수필은 필자의 건망증을 토로한 조카에게 유교적 관점에서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다는 독특한 답변을 역설과 이중부정 등을 빈번하게 사용해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나 수필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가)에서는 '푸른'이라는 동일 색채어를 4번 반복하여, (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등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명시적 청자가 제시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구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나)는 사물을 의지적 존재로 봄으로써, (다)는 세태를 비판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 (나) 둘 다, 대상과 소통하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았다.

✔ 해답 ②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나뭇가지의 그림자'로 비유된 자연이 '흰 벽'으로 비유된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바루기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두리기둥'으로 비유된 인간의 역사가 '볕과 바람'으로 비유된 자연을 수용함을 나타낸다.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기왓장'을 비유된 인간의 역사가 멀리 있는 바람 소리 즉 새로운 기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주춧돌'로 비유된 인간의 역사가 푸른 싹과 나무로 비유된 자연과 어우러져 새로운 생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닫혀진 문'으로 비유된 인간의 역사가 빛이 쏟아지는 새벽으로 비유된 자연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해답 ①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구에 대한 의미 파악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고 '신명 나는 일'은 담을 넘는 일이므로 이는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바루기 ① [A]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대상은 뿌리이며 '손을 터는' 것은 꽃과 잎의 행위로 인하여 가지가 '한없이' 떨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 '고집 센'의 주체는 비이며 '도리 없는'의 주체는 폭설이다. 이들을 통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와 이어질 수 있으나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은 담을 넘는 것이므로 이와 이어질 수 없다. ⑤ [A]에서 '않았다면'의 주체는 수양의 꽃과 잎이고 [B]에서 '아니었으면'의 주체는 비와 폭설인데 이들이 강조하는 대상들이,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인지 판단이 없다.

✔ 해답 ③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② ⓑ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③ ⓒ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④ ⓓ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⑤ ⓔ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진술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라는 가정으로부터 내린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물음이다.

오답 바루기 ① ⓐ에 대해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에 대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라는 답변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와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라는 구절을 관련지어 보면 '먼 것'은 잊지 못하는 것이 되고 '가까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되며, '새것''은 잊지 못하는 것이 되고 '옛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 ⑤ ⓔ는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잊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 해답 ③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중심 제재에 대한 태도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은 '상기 닫혀진 채'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오답 바루기 ① ㉡이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없다. ③ ㉠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표현은 없고, ㉡은 외부의 간섭과 교감하려 하고 있다. ④ ㉠과 ㉡ 둘 다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하는 표현은 없다. ⑤ ㉠과 ㉡ 둘 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다.

✔ 해답 ②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의미 파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다)의 '예의'나 '분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이라는 구절과 관련지어 보면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오답 바루기 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담쟁이 줄기는 담을 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와 관련된 진술은 적절하고,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다)와 관련된 진술도 적절하다.

✓ 해답 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A]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B]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C]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작품명과 작가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김인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7행 : 부산을 떠나 고국을 돌아봄

8~14행 :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남

9~20행 : 귀국하여 임금께 보고하고 물러나옴

21~끝행 :물러나와 쉬다가 귀향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태평성대를 누림

주제 | 일본 사행의 과정과 견문 및 감회, 귀국 후의 보고와 귀향의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1.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가는 정확한 노정과 일시를 적고, 날씨, 자연 환경, 일어난 사건, 작자의 느낌 등을 과장없이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날카로운 비판과 유머가 곁들여 있어 기행 문학의 본령(本領)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명과 작가

㈏화암구곡, 유박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화암 풍경의 으뜸인 석류, 매와, 솔

봄날에 뜻대로 소일함

야인 생활에 대한 자족감

주제 | 화암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자족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2. 화암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야인 생활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손수 가꾼 자연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예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섶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 쉰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라는 표현을 통해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외부 환경인 대풍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③ '양류풍'이라는 표현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고 있으나 애달픈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④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두 인물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다.

✔ 해답 ②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라는 표현은 가족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지 무심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바루기 ①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아무것도 아니 뵈고'라는 표현과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 물 흐르듯 하는지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라는 표현과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고 있으나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바루기 ①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자신이 기른 화훼류에 대해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라는 표현과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라는 표현과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④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유형문제

구원 수능국어

출제 경향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반어 역설
풍자 표현 기법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흐렴은.

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끓는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

시에서는 사물을 더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는 기교나 사고 방식으로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비유 등의 문학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것을 구별하여 찾아내거나 그 효과와 거기에 담긴 의미나, 필자의 의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

(1) 반어(反語, irony)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인상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 일기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무 일도 못하고 가슴 아프게 지냈다'는 의미의 반어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역설·모순 형용

①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일면 부정한 권력에 누명을 써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임의 목소리만 들리거나 임의 얼굴만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②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竝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나스탤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I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3) 풍자(諷刺, satire)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문보기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빼자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찌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뻔디기 니야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삐억 삐어 뻔디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뻔디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작품명과 작가
뻔디기,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풍자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서정주, 뻔디기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뻔데기니야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1. 비속어를 써서 부정적 현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비속어를 써 가며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예문보기

넥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답니다.
살갗을 희게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트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슲은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 김기림, 시민 행렬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분을 풍자하고 있다.

(4) 비유법

①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 **주관적 변용(사이비 진술)**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 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문보기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 작가 미상, 민요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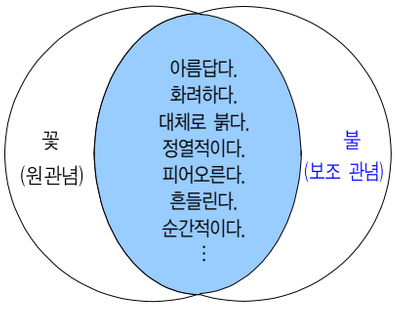
예문보기

심금(心琴)을 울린다.

심금은 원래 마음을 울리는 거문고란 뜻이지만 마음을 비유하는 사비유에 해당한다.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비유의 성립 과정>



대상을 서로 유추(類推)하거나,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를 성립시킨다.

② 기능

㉠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③ **종류** : 두 사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문보기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신경림, 농무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꺽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림이　　공통점 : 해해댄다.

㉡ **은유법**(metaphor) : 공통점을 숨기어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보기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 서정주, 광화문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예문보기

시간의 발은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 강규형, 쓰러지는 잔

시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 :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예문보기

귀또리 져 귀또리 어여쁘다 저 귀또리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예어 사창에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고시조

귀또리가 즐겁게도 울 수 있고 슬프게도 울 수 있을 것인데 위 시에서는 절절이 슬픈 소리로 혼자 운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사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문보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위 시에서 '나룻배'는 행인을 강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보기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위 시에서 '새'는 귀촉도를 가리키며 귀촉도는 자규, 망제, 두혼, 두우, 두백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넋이 두견이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객관적으로 슬프게 우는 새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예문보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

위 시에서 '기(旗)'는 때로 흔들리기고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평온을 되찾는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문보기

송장이
수백만(數百萬)
붉은 피가
삼천리. —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7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 대유법은 환유법와 제유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문보기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 이유경, 아버지의 흙2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풍유법(allegory)**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는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 **알레고리(allegory)** : 영어로 풍유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풍유로 표현한 대상을 특별히 알레고리라 지칭하기도 한다.

예문보기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 **중의법** : 하나의 말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따해 났다니. —성삼문, 고시조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뜻하고, '채미'에서 '미'는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5) 강조법

①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들어낸다.

예문보기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 고은, 성묘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점층법** :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문보기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뵜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 김상용, 고시조

ⓔ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대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사실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 박성룡, 양귀비꽃

ⓖ **억양법** : 처음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두 사실을 명백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작품명과 작가

도산십이곡, 이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길 고인 → 도 성현

주제 | 학문에의 정진

표현상의 특징

1.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2. 상징어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길을 상징적 의미로 활용해 학문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예문보기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폐허여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 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억양법이다.

ⓞ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문보기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 이황, 도산십이곡

(6) 변화법

①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켜 강한 인상을 준다.

예문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는. — 김현승, 절대 고독

ⓒ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문보기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련만…….

— 이상화, 나의 침실로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 **설의법**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변화법으로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문보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7) 언어유희(言語遊戱, pun)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치정(癡情) 같은 정치가
상식(常識)이 병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빛과 살붙이와
*한*금이 *실현*하는 *현실* 앞에서
다달은 낭떠러지! — 송욱, 하여지향

음절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로 재미와 함께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북창(北窓)이 맑다커늘 우장(雨裝)이 업시 길을 나니
산(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 비 맛잣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찬비는 한우(寒雨)라는 기생을 나타내는데 기생의 이름에 들어있는 한(寒)의 의미를 이용해 '얼어 잘까'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임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비에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 고백

표현상의 특징

1. 언어유희를 이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언어유희를 이용하여 찬 비에서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을 흥미롭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구원 수능국어

사고 방법

표현 기법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반어는 언어적으로는 아무 모순이 없으나 상황적으로 상반된 표현인가로 판단한다.
2. 모순 형용은 앞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란히 놓였는가로 판단한다.
3. 역설은 언어 자체의 모순보다도 상황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면에서 진실된 것인가로 판단한다.
4. 풍자는 표현한 대상이나 의도를 축소시켜 표현하므로 이를 확대시켜 볼 때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5. 언어유희는 다음을 확인해 본다.
   - 음절이 도치되는 말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핀다.
   - 부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제시된 말을 앞뒤의 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7. 표현된 시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선명한 인상, 효과적 전달, 강조, 새로운 관심 환기, 여운 등)를 생각해 본다.
8.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에는 대구 등 문맥에 의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9. 수사법의 종류를 익혀 주어진 시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10. 표현하고자 한 실체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비유법
11. 독자의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강조법
12. 단순하거나 무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절이나 시행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변화법
13. 사물을 어떤 형태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14. 사물을 주관적 변용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활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ᄂᆞ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ᄲᅳ릴 ᄲᅮᆫ이로다
비 ᄉᆡ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쏠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ᄒᆞᆯ고
낫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ᄒᆞᆯ셔이고
혬 업는 죵의 일은 뭇도 아니 ᄒᆞ려니와
도로혀 혜여ᄒᆞ니 마누라 타시로다
㉢ᄂᆡ 주인 외다 ᄒᆞ기 죵의 죄 만컨마ᄂᆞᆫ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ᄒᆞ야 사뢰나이다
㉣새끼 ᄭᅩ기 마르시고 내 말ᄉᆞᆷ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ᄒᆞ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동량재 = 뛰어난 인재(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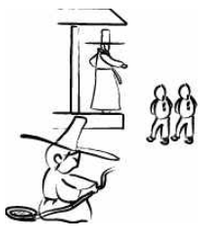
주제 |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

표현상의 특징
1. 유추적 사고를 통해 동량재를 뛰어난 인재로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마누라 : 임금
종 : 하급 신하
어른 종 : 화자이자 고위 신하
가도 : 국가의 도리
→ 우회적 표현, 풍자성 강화

주제 |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

표현상의 특징

1 국가를 집으로 유추하여 표현함으로써 우회성과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2 연쇄와 반복을 통해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3.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국가를 집에 비유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의 표현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 연쇄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바루기 ② (가)의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라는 구절에서 'ᄒᆞᆯ고'는 '할까'란 의미로 설의법이다. 이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라는 구절에 동일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량재→인재, 집→국가, 목수→인재 관리자(임금 등) 등은 은유법이다. 또 (나)에서는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④ (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메 개까지 덩달아 짖어 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작품명과 작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의좋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1.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켜 운율감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가난하여도 의좋게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그 나무 –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B]

작품명과 작가
㉯그 나무, 김명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늦된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0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한 두 구절의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대비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A]는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키고 있지만 [B]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가 없다.

오답 바루기 ① [A]에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만 있지 대조는 없다. ③ [B]와 [A] 둘 다 공감각적 표현은 없다. ④ [A]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B]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⑤ [A]에서 '까 여', '다 여' 등은 사람 말의 종결 어미를 따온 것으로 의성어가 아니며 [B]에서도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산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A]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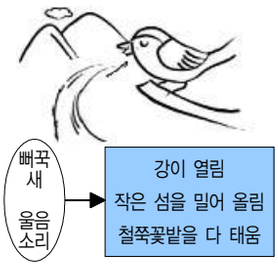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 **길뜬**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작품명과 작가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뻐꾹새 울음소리의 실체와 그 영향

표현상의 특징
1. 중심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제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는 이 시는 뻐꾹새 울음소리가 끼친 영향을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면앙정가, 송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8행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

9행~끝행 면앙정의 정경

주제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표현상의 특징

1.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4음보를 반복해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하는 삶의 행복감과 자부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히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
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B]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긑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0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문항분석 두 시구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A]에서는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활유법이나 의인법을 구사하여 동적 미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B]에서는 물을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이란 구절 등을 통해 동적 미감을 시각적으로 직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펴졌거든'라는 구절에서는 모래밭을 직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②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라는 구절에서 보듯 강한 음보율을 드러내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둘 다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둘 다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둘 다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즐거운 편지

〈 I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II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작품명과 작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의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1. 편지투의 어조로 내적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
2. 시적 화자 자신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평가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두 연으로 된 산문시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의 태도를 세월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사소하다고 자칭하는 표현에서 겸손한 우리말 어법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04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 I 〉과 유사한 것은?

①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 거 같으셨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면
아무 하늘도 안 보였으리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③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④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ㅅ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시적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은 ~ 사소한 일일 것이나'라든지,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일은 나로서는 뜨거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소함이란 표현은 본래 의도와는 상반된 의미이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②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임이 어느 날 찾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으시는 날 그때까지 못잊어 하고 있겠다는 것은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바루기 ①은 가정법을 통하여 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③은 종소리와 자신을 동실시(의인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는 자신·자신의 백골의 대립을 통하여 절대적·도덕적 이상의 추구를 염원하고 있으며 ⑤는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05 ㉠과 같은 표현 방법을 구사한 예가 아닌 것은?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③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오래지 않으리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⑤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꽂고 돌아들 간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인 모순 형용[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외로운'과 '황홀한'이 심사를 꾸미고 있는데, 외로우면 황홀할 수 없고 황홀하면 외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이므로 언어 자체가 모순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순 형용[역설]이다. ⑤에서는 애정의 핀이라는 구절에서 은유법만 사용되었다

오답 바루기 ①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황홀한 재앙'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외로운 눈부심'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⑤

작품명과 작가
유리창1, 정지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식을 잃은 애절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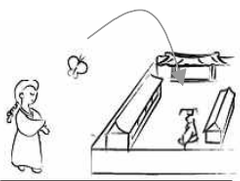
1.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상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의 구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제시함(감정의 대위법)으로써 감정을 절제한 느낌을 자아낸다.
4. 호흡을 점점 길게 하는 점층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유리창에 비치는 죽은 자식의 영상을 산새와 별로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애끊는 마음을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 대립적 언어를 병치하여 오히려 차다고 느낄 만큼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사미인곡,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

주제 |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임에 대한 사랑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4. 4음보의 율격을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제시된 시가는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축원과 잠 못 이루는 사랑,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좇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임은 임금이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곤(乾坤)이 폐ᄉᆡᆨ(閉塞)ᄒᆞ야 ᄇᆡᆨ셜(白雪)이 ᄒᆞᆫ 비친 제 사ᄅᆞᆷ은ᄏ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샹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므ᄉᆞᆸ ᄒᆞ리.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茅簷)* 비쵠 ᄒᆡ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샹(紅裳)을 니믜ᄎᆞ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듁(脩竹)*의 헴가림도 하도 할샤, 뎌ᄅᆞᆫ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쳥등(靑燈) 거른 겻ᄐᆡ 뎐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ᄭᅮᆷ의나 님을 보려 ᄐᆡᆨ 밧고 비겨시니, 앙금(鴦衾)도 ᄎᆞ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

하ᄅᆞ도 열두 째 ᄒᆞᆫ 둘도 설흔 날, 져근덧 ᄉᆡᆼ각 마라. 이 시ᄅᆞᆷ 닛쟈 ᄒᆞ니, ᄆᆞᄋᆞᆷ의 ᄆᆡ쳐 이셔 골슈(骨髓)의 ᄉᆡᆺ텨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ᄒᆞ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 쇼샹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옥누(玉樓) : 옥황 상제가 있는 곳
* 모쳠(茅簷) : 초가집 처마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슈듁(脩竹) : 긴 대나무
* 뎐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06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윗글에서 찾으면?

| 보 기 |

冬至(동지)ㅅ둘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옥누(玉樓)
② 양츈(陽春)
③ 홍샹(紅裳)
④ 앙금(鴦衾)
⑤ 골슈(骨髓)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표현과 표현 기법상 유사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추상적 의미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베어내고 이불 아래 보관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구체적 사물화시켜 부쳐 내고 임 계신 데 쐬고자 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옥누의 원관념은 궁궐이므로 은유법이다. ③은 '붉은 치마'이므로 사실적 표현이다. ④는 원앙 금침의 준말로 원앙은 금슬이 좋다는 관습적 상징이며 금침은 베개와 이부자리이므로 사실적 표현이어서 주관적 변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는 뼛속이라는 말이므로 시름이 뼛속에까지 끼쳐 있다는 표현이므로 과장법이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사라수 : 상록수의 일종
*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 : 부처님이 산다는 장엄한 세계

작품명과 작가
삼국유사, 일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연화장계관에 들어가기를 빎
↓
주제 | 죽은 자에 대한 축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한시의 한 특징인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살리면서 죽은 이가 부처의 세계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다.

07 위 시와 표현의 방법이 유사한 것은?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②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기에
아름다운 목숨을 싣고 갔느냐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제시된 시에는 '옛날과 지금', '석가모니불과 그 같은 자', '열반과 연화계관장', '들었는데와 들어가려 하네'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비루기 ①에서는 '바람'이 고난, 어려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⑤에서는 당신이 '조국, 불법(佛法), 연인'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길,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마귀 = 감정 이입
기러기 = 선망의 대상

주제 | 나그네의 비애와 정한

표현상의 특징
1. 3음보를 구사하여 강한 율격미를 드러낸다.
2. 기러기에 말하는 형식으로 대화 존재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비애를 자연물에 기대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 길 –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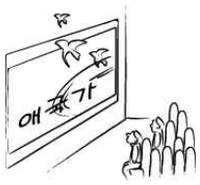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작품명과 작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반어 : 시대 상황 비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반영〉

주제 | 암울한 현실적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상의 특징

1. 현실을 죽음과 절망,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자유로운 새들과 시적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4.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등의 표현에서 반어법을 구사하여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면서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한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와 (나)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새로운 세계에, (나)의 화자는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가)의 화자는 길을, (나)의 화자는 애국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③ (가)의 화자는 냉소적 어조로, (나)의 화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⑤ (가)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의 화자는 흰 새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소월에게서 '임'과의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으로, 그 이별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주어 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소월의 시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된다.

① 임과 같은 '내 집'을 떠나 유랑하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군.
② 임과 같은 '내 집'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군.
③ '산'은 '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해.
④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 되는군.
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란 표현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딱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

유형문제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목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란 표현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 암시되어 있다.
② 전체적으로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③ 2행의 '경청한다'란 표현은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④ 10행의 '이 세상 밖'은 또 다른 환멸의 공간을 의미한다.
⑤ 17행과 18행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현실 순응을 강요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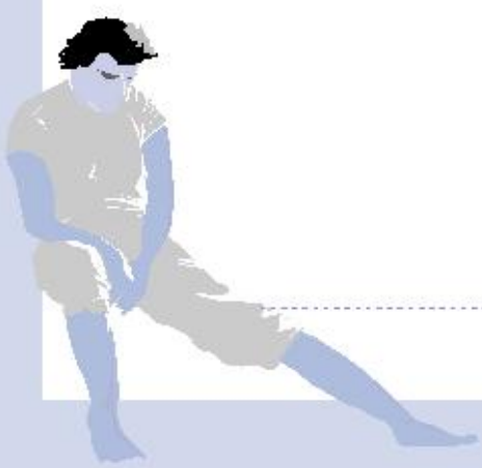
(가) 길, 김소월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나그네 집'이란 시어에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론가 여행이나 혹은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가 '울며 새었다'면 시적 화자도 밤새워 들었을 게다. 잠 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터니. 그렇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무슨 근심에선가 밤새 슬퍼 잠 못 이루었다는 얘기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란 표현에 있다. 고향을 떠나온 상황이다. '차 가고 배 가는' 고향을 두고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옛가요에 나오는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신세'에 처한 자신의 딱한 상황 때문이리라.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일까 아니면 사회적 사정일까? 약간의 배경 지식만 동원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하의 지독한 수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공중의 저 기러기를 불러대는 것은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한 대화 상대의 부재를 나타내 고독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목표는 오락이다.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란 말을 듣는다면 기절할 노릇이리라. 반어의 섬뜩한 묘미를 활용해 강요된 의식에 대한 비판의 장을 열고 있다. '삼천리 화려 강산'도 당시의 현실으로 봐서는 반어적이며 대유적 표현이다. 화면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절망 속에서는 새들의 비상도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로 애국가는 끝이 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것도 '주저 앉는다'. 절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3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문제 1-1]

01	⑤	02	③	03	④		

01 ⑤

문항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가)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기러기를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흰 새떼들을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나)에서는 '주저 앉는다'란 구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가)는 집을 내세워 고향 즉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 밖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②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애국가를 들으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현실 도피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애상적 어조, (나)는 냉소적인 어조를 드러낸다. ④ (나), (나) 둘 다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02 ③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는 갈 곳 모르는 심정의 표현이지 산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바루기 ① 시적 화자는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하며 유랑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 적절하다. ②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보듯 정주곽산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④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다. ⑤ 차와 배는 갈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여 유독 시적 화자만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잘 드러낸다.

03 ④

문항분석 시구의 표현 기법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이 세상 밖'은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이 싫어 떠나고자 하는 지향점이므로 이상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오답 바루기 ① 제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세상을 새들도 싫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암울한 시대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등의 구절에 된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청한다'는 듣기 싫어도 마지 못해 듣는다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이다. 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부정적인 세상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억지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